

# 독립국가연합(CIS) 유학생이 인식하는 효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filial pie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CIS countries

박미숙\*\* 인하대학교  
오영훈\*\*\* 인하대학교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군사부일체로써의 효의 의미
  - 2.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1. 국가에 대한 효의 의미
  - 2. 스승에 대한 효의 의미
  - 3.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
- V. 결론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이 인식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  
(No. NRF-2013R1A2A2A04013571)

\*\* 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하는 한국의 효는 자신의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국가연합 유학생 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한국의 군사부일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효 인식을 국가, 스승, 부모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 문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에 대한 효의 의미는 자신이 교량이 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싶어 했다. 또한 모국에 대해 알려주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모국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다. 둘째, 스승에 대한 효는 학자의 길을 계속 가는 것과 스승의 연구에 참여하는 것, 무사히 졸업하는 것과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효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부모에 대한 효는 한국에서 몸 건강히 지내는 것과 부모가 좋아하는 것 하기, 성공한 모습 보여주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부모를 위한 효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효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의 효 교육에 기초자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독립국가연합, 유학생, 효 인식, 경험.

## 1. 서론

한국의 대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 중 러시아어를 공통어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주변 독립국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서로 나라는 다르지만 러시아어로 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 독립국가연합<sup>1)</sup>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된 후 11개 구소련 공화국들이 결성한 정치연합체이다.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1,413명과 카자흐스탄 748명 이외에 다른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은 통계에도 나오지

1)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USSR)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가리킨다. 2008년 조지아(그루지야)가 탈퇴하여 2014년 3월 현재 CIS 구성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9개국이다.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은 비공식 참여국이다.

않을 만큼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유학생 99,142명에 비교하면 2.2% 정도로 아주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sup>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지리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효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효는 오랫동안 인간의 가치기준의 근거이며, 인간관계의 근원인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덕목이다<sup>3)</sup>. 이러한 효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의 문화기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생활전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이런 효 문화를 접하고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효의 의미에 대해 생소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모국과 비슷하여 쉽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다. 특히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이들에게 부모와 같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도해주는 스승에 대한 생각은 일반 학생들과 다를 수 있다. 한국에는 이전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가르침을 주신 스승과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sup>4)</sup>. 즉 스승의 가르침을 중요시하고 스승을 임금이나 아버지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그러나 한국의 효 문화는 많이 퇴색되어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식하는 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유학생생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유학생들의 효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들의 효를 탐색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고 유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2) 법무부 통계월보, 2015년 10월호.

3) 박미숙·이미정, 「한국대학원에 재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2015).

4)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008).

## 1. 군사부일체로서 효의 의미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며,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sup>5)</sup>. 시대가 변하여 효를 행하는 기준이나 방법은 변하였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효의 본질이며 자식의 도리이고 인간의 도리이다. 공자는 일찍이 덕을 강조하였는데, 덕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며 그 덕의 출발점은 인이라고 하였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덕이라 할 수 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면 인간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이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효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공자는 효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선을 행하지 못하면 사회정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며, 효는 모든 덕을 행하는 기본이라 하였다. 효는 부모에 대한 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한 효에 대하여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 군사부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의 유교문화인 삼강오륜에서 비롯되었다. 삼강오륜은 중국 동중서가 공맹의 교리에 입각하여 삼강오상설을 논하면서 유래되었으며, 중국뿐 만아니라 한국에서도 사회의 기본윤리로 존중되고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윤리이다<sup>6)</sup>. 여기서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이렇게 군사부일체는 삼강오륜에서 비롯되어 임금과 신하, 아버지에 대해 자식이 효를 행하라는 것이다. 삼강오륜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뿌리박혀 있는 윤리라고 할 경우, 군사부일체는 인간이 행해야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은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세 주체가기 때문에 동일시 여기며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현대적 의미를 동일성 관점과 단일성 관점으로 해석하였다<sup>7)</sup>. 즉

5) 조준하, 「전통윤리의 핵심과 덕목: 한국인의 가정윤리」. (학문사, 2000).

6) 손인수, 「한국유학사상과 교육」, (삼일각, 1976).

동일성 관점은 군사부일체를 동일한 존재로 여기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하나의 규범적 규범으로 제시하였다면, 단일성 관점에서는 임금과 스승, 부모는 한 몸으로 단일한 존재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임금, 스승, 부모에 상응하는 사회, 학교, 가정의 삼자이며, 이 삼자는 단일한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하였다<sup>8)</sup>.

흔히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효는 임금이나 스승에 대한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과 스승의 관계는 혈연관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공질서와 사회윤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사부일체는 한 인간의 자기완성이며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에 의해 온전해질 수 있으며, 군사부일체는 효에 대한 현대교육의 주요한 원리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와 스승과 임금은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세 주체이기 때문에 동일하며 한결같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현재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에 대한 효는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임금에게 하는 효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어떻게 행동할 때 국가에 유익한지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스승에 대한 효는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스승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인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효이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질적인 봉양이나 보신을 떠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부모가 좋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효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스승, 부모로 구분하여 독립국가연합 유학생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7)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008).

8) 고대현, 「유학전통에서 스승의 규범적 지위와 현대적 의미」. (한국초등교육, 2011).

9)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008).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미정 외<sup>10)</sup>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따른 요인을 생활습관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강현민 외<sup>11)</sup>는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어떻게 적응해나가는지 유학초기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이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병희<sup>12)</sup>와 고대혁<sup>13)</sup>은 군사부일체를 주제로 연구하였다. 김병희는 군사부일체를 교육적 의미에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고대혁은 스승의 규범이나 지위에 대해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효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류정려<sup>14)</sup>가 중국 현지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 의식을 고찰하였으며, 박미숙·이미정<sup>15)</sup>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효 의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정애 외<sup>16)</sup>는 결혼이주여성의 효 의식을 통계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을 제외하고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연구와 유학생들의 효 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유학하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의 적응과 고려인의 현지 문화 전승에 대한 연구와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 연구되었다는 점과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여성의 효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독립국가연합에 대한 효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유학 온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효 인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국가와 스승에 대한 생각 및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10) 이미정·우루쿤치예브 아들백·박수정·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015).

11) 강현민·니고라혼·홍유나,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14).

12)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2008).

13) 고대혁, 「유학전통에서 스승의 규범적 지위와 현대적 의미」. (한국초등교육, 2011).

14)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5) 박미숙·이미정, 「한국대학원에 재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효의식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2015).

16)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2009).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중인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공용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의 효 문화에 대해 자신의 나라와 다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질적연구방법인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연구참여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설문에서 찾지 못하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으로 유학 온 독립국가연합 학생 5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고, 한국어로 인터뷰가 가능한 학생들을 제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출신국	성별	학위과정	한국거주기간	한국어정도
연구참여자 1	우즈베키스탄	여	박사	9개월	고급
연구참여자 2	우즈베키스탄	여	박사	1년 9개월	고급
연구참여자 3	키르기즈스탄	여	석사	9개월	고급
연구참여자 4	키르기즈스탄	남	석사	4년	고급
연구참여자 5	카자흐스탄	여	석사	9개월	고급

연구참여자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2명, 키르기즈스탄 2명, 카자흐스탄 1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의 성별은 여학생이 4명, 남학생이 1명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중 학생들로 박사과정이 2명, 석사과정이 3명이다.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싶은 범위 중 스승에 대한 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보다 대학원생들이 교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적게는 9개월부터 많게는 4년까지 한국에 거주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강사를 한 적이 있으며, 연구참여자 2는 한국의 다른 대학에서 1년 정도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연구참여자 3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 대사관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연구참여자 4는 한국의 근로현장에서 3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체류한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한국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정도는 모두 5급과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는 유창하였다. 따라서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할 수 있어 인터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먼저 심층인터뷰를 하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반구조화된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심층면담은 조용한 휴게실에서 진행하였고, 면담은 1시간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생각할 때 인터뷰를 중단하였다. 면담 시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중요내용을 코딩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부터 시작하여 비교 반복과정을 거쳐 귀납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전사한 내용을 보내 확인하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 동료 질적연구자에게 검토 받는 과정을 반복했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여 효의 대한 인식을 국가에 대한 효와 스승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효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 1. 국가에 대한 효의 의미

###### 1) 모국과 교량 역할하기



국가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중재자는 어떤 상황에서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잘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유학생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가 국가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제가 남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리가 되는 것,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것, 두 나라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것 이에요. 작게는 통역, 번역 이런 것도 해주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연구참여자 3)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연구참여자 3은 사람과 사람사이에 또는 두 나라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작게는 통역이나 번역을 통하여 인간사이의 소통하는 역할과,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는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이런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잘 하고 한국문화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이 모국을 위해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거시적인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인재 양성하기

자신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모국에 가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지식이나 시스템을 잘 배우고자 하였다.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우리나라에 가서 학생을 가르치면 또 여기서 배웠던 시스템으로 배운 경험을 잘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가서 적용해보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여기서 배운 지식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행동일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교육과정이나 체계를 가지고 자신의 모국에 적용하거나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나라 위한 일을 하는 것과 연구참여자 5 역시 한국에서 배운 지식을 국가를 위해 사용할 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훌륭한 인재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3) 모국을 홍보하고 모국사람 도와주기

모국을 떠나와 이국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국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와 애국심이 생기기도 한다. 한국에 유학하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도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모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나 모국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고 싶어 했다.

“카자흐스탄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전세계에 대해 알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일본·한국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5)

“저에게 키르기스스탄의 노동자들이 자주 연락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노동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제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구나. 내가 한국에

오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 통역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이든 월급이든 잘 받고 잘 살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연구참여자 4)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으로 근로하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이것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모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을 떠나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스승에 대한 효의 의미

### 1) 학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학자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다. 유학생들도 자신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스승이 자신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공부를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박사마치고 나서도 열심히 하고 끝나고 끝까지 공부를 버리지 않고 학문에 손 놓지 않는 것을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사를 받고 난 후에도 학자의 길을 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학문적 지식은 계승되니까 교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지식들을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교수님이 안계셔도 교수님의 말씀이나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 스승에 대해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교수님같이 학문적 철학을 계승하고 싶어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1은 스승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학자의 길

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스승의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 학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전의 유명한 학자들도 자신들의 철학을 제자들이 계승하고 전파하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스승에게 도리를 다하고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학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며, 역시 외국인 학생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스승의 연구에 참여하기

연구에는 많은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스승을 위한 것이 스승에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여기 왔을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와 고려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연구를 하시거든요. 교수님이 관심이 있어서 하시지만 언어도 안 되고 우리 문화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 것이 교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이 관심가지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이 스승의 연구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스승을 위한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스승을 가까이서 도와주고 스승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도와준다면 스승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인식하였다. 많은 학생들은 스승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승이 하는 일을 돕거나 함께 하는 것도 스승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졸업하기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은 낯선 한국문화와 학교상황에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 자신의 모국에서 배운 것과 달리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체계에 대한 생소함이나 서툰 한국어로 소통이 안 될 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스승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저희가 한국학생들과 잘 지내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수님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연구참여자 2)

“교수님은 만나면 다 잘해줘요. 부모님같이 해주고 제가 잘 적응하는지 많이 물어주고 그러죠.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잘해주셔서 잘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졸업하는 것이 제가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2의 경우는 자신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스승이 항상 고맙고 스승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스승덕분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며, 한국 학생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한국 생활에 어려움 없이 또 문제없이 잘 적응하는 것이 스승을 위한 자신들의 행동이며, 이것이 곧 스승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학생들보다 더 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끔 저는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예요.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주는 것 같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거든요. 어떨 때는 부모 같아요. 그렇게 제가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거든요.” (연구참여자 5)

또한 연구참여자 5는 스승이 자상하게 챙길 때 자신이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라고 하였으며, 스승이 자신의 부모와 같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잘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스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다고 하였다. 이런 학교문화는 자신의 모국과 많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자신도 한국 상황에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 3.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

### 1) 한국에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기

모든 사람은 부모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보답하여야 한다고 인식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현재의 자기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제가 한국에서 사진 찍으면 바로 부모님께 보내주고 해요. 컨퍼런스 같은 것 해도 바로 보내주고 이렇게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제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구참여자 1은 부모가 걱정하실까봐 항상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진을 찍어 보내어 부모를 안심시킨다고 하였다. 자신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항상 알려주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 2 역시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을 부모가 가장 바라실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힘들어도 항상 열심히 공부하라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며 한국에서 생활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는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에서 잘 지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아프면 부모님께 말 안 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요. 부모님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없잖아요. 괜히 마음만 불편하게 할 것 같아 얘기 안하죠.” (연구참여자 3)

“아픈 것 당연히 말 못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요.” (연구참여자 4)

그러나 연구참여자 3과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이 아파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은 한국생활에 힘들거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은 부모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었으며 존경한다는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하여 한국학생들에게 효 의식은 퇴색되어가고 있지만 독립국가 학생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아직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영향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부모가 좋아하는 것 하기

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교육받으면서 부모를 꼭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에 대해 보여주고 싶고, 자신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교육을 중요시 여겨서 미국도 보내주고 비싼 등록금도 내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필요한 것을 사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하고 내가 미국을 가든, 한국을 오든 부모님은 못 오시잖아요. 일단은 여기 와서 구경 좀 시켜주고 싶어요. 아직은 한국 안가본데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3)

“좋은 일을 찾아 월급을 많이 주는 일을 해서 매월 생활비를 주고 싶고 좋은 옷도 보내주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위해서 아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언니와 저한테 다 주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했으면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많은 걸 해주고 싶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미국과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 번도 부모가 오신

적이 없어서 부모를 꼭 초대하여 한국에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혼자 계시는 엄마가 항상 안쓰럽고 힘이 못되고 있어 속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여행을 시켜드리는 것도 자신이 효도하는 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4는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을 찾아서 부모의 생활비도 주고 싶고, 좋은 옷과 음식을 사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모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효의 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3) 자주 안부 묻기

항상 부모를 걱정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신이 가까이서 챙기지 못하는 점 때문에 항상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통하여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부모님한테 열두시에 공짜로 통화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다리다 전화해요. 엄마 아픈 것도 물어보고 저도 잘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매일 안부하고 그걸 꼭 듣고 여기서 전화하지 않으면 엄마가 안자요 엄마목소리라도 듣고 엄마한테 엄마가 안 아프고 건강한 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해요.” (연구참여자 1)

“부모님과 자주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래요.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무슨 일이 없는지 그런데 부모님은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병원가라고 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1은 부모와 매일 통화를 하여 부모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였다. 학생들이니까 무료통화시간을 기다려 부모의 안부를 묻고 집안에 별일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 역시 매일 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부모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멀리 있지만 항상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정 외<sup>17)</sup> 연구에서 중앙아시아는 아직도

17) 이미정·우루쿤치예브 아들백·박수정·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림,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015.



혈연사회로 대가족 단위가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내부에 가장의 권위가 확실하고 가족은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부모에게 더욱 순종하고 부모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성공한 모습 보여주기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이 꼭 이루길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목적을 잘 이루고 성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제가 생각하는 효도는 성공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2)

“대학에서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엄마가 기뻐하고 장학금 같은 것 받으면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랬어요.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2가 생각하는 효도는 부모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3 역시 상을 타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할 때 부모가 좋아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가 가장 좋아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자소학에서는 부모에게 입신양명(立身揚名)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고 하였다. 효경에서 입신양명은 뜻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날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성공하여 부모의 이름을 빛나게 하거나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도 이렇게 자신이 성공하여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 5) 경제적인 지원 안 받기

자식은 한 개인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에게서 보호받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후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스스로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부모님은 학비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저는 보내지 말라고 엄마도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살아요. 제가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돈까지 달라고 하면 그건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살고 그것으로 진 충분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기숙사비가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말했는데 부모님도 돈이 없을 텐데 바로 부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돈을 얻을 수도 있는데 너는 다른 나라에서 어찌겠냐고 하셨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제가 해결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런 것이 효도 아닐까요?” (연구참여자 5)

부모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안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자신이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5 역시 부모들도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한국생활을 한다고 하였다. 현대사회는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하다보니 자신들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부모에게 효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효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이들의 효 인식을 군사부일체의 개념에서 국가, 스승, 부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자신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과, 모국을 알려주고 모국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은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국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한국에 유학하면서 자신을 지도하시는 스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스승의 철학을 계승하는 학자가 되어 연구를 도와주고 싶어 했고, 스승이 걱정하지 않게 잘 적응하고 졸업하여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스승이 자신들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은 느끼고 제자로서 스승의 철학을 계승하고 싶어 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스승에 은혜에 대해 제자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였다. 셋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여 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에게 항상 안부를 물어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며, 또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몸은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의 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이 많지 않아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은 수의 학생들에 대해 살펴볼 수 없었다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독립국가연합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한 본 연구는 효의 가치가 사라지는 요즈음 유의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독립국가학생들에게 자신의 국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 스승들의 고마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해 감사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투고일자 : 2015. 12. 05. / 심사일자 : 2015. 12. 26. / 게재확정일자 : 2015. 12. 29.

<참고문헌>

- 강현민·니고라혼·홍유나.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4)(2014), 215-240면.
- 고대혁. 「유학전통에서 스승의 규범적 지위와 현대적 의미」. 『한국초등교육』, 22(2) (2011), 57-73면.
- 김병희. 「군사부일체의 교육적 의미」, 『교육철학』, 34(2008), 61-83면.
- 류정려. 「중국대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2013.
- 박미숙·이미정. 「한국대학원에 재학하는 중국 유학생의 효 의식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21(2015), 115-136면.
- 손인수. 「한국유학사상과 교육」. 서울: 『삼일각』, 1976.
- 이병조.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전승실태」. 『재외한인연구』, 28(2012), 187-239면.
- 이미정·우루쿤치예브·아들백·박수정·아이고자에바 아이게립.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21(5), (2015), 283-307면.
- 윤무학. 「선진 유가의 군신윤리와 충 관념」. 『동양철학연구』, 48(2006), 251-279면.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임수무·홍원식. 「효 윤리의 형성과 철학적 근거」. 『동양철학연구』, 29(2002), 293-312면.
- 임영상.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청소년의 현황과 분석」. 『역사문화연구』, 29(2008), 3-46면.
- 장준오·이윤미·한종만·김정훈·배규성·김봉서(2011). 「국제인신매매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총서』, 20(2011). 1-495면.
- 정정애·박영숙. 「한국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의 효의식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효학연구』, 10(2009). 115-141면.
- 조준하. 「전통윤리의 핵심과 덕목, 한국인의 가정윤리」. 서울: 『학문사』, 2000.

<Abstract>

## A study on the filial pie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CIS countries

Park, Mi Suk · Oh, Young Hu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meaning of filial pie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CIS countries, and to observe the difference between filial piety in Korea and that of their home countries. For this, 5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CIS countrie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m from September to November of the year 2015. The interview was based on the Korean consideration of “The favor of the king, the teacher and the father are the same” and analyzed the students’ perception of filial piety categorizing them into country, teacher and parents.

The filial piety culture perceived by them was shown as follows.

First, as the filial piety for the country, they want to become a bridge and cultivate a talented individual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country. Also, they want to contribute to making their home country known and help those people who moved to Korea from their countries.

Second, as the filial piety for the teacher, they perceive continuously walking the path of a scholar, helping their professor with research, graduating without misadventure and adapting well..

Third, as the filial piety for parents, they perceive living well in Korea, doing something good for parents, inquiring the health of the parents, succeeding, and not receiving financial help from them..

This research was an opportunity to examine filial piety as perceived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is expected to provide baseline data for the education of filial duty in Korea.

**Key Words** : CIS, international students, perception of filial piety, experience.